

CTS, 전 세계가 참여하는 K-가스펠

비대면 경연대회! 그리고 전문가 강의 혜택 제공!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글로벌 문화 선교의 확산을 기대하며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 오디오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라!

이번 경연 대회의 지역과 국경을 초월해 예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www.kgospel.co.kr)에 접속해 'K-가스펠' 지원이 가능하다. 필리핀, 브라질, 영국, 프랑스, 몽골, 필리핀, 아, 탄자니아, 체코를 포함해 24개 국가 26개 도시에서 참가 신청을 요청한 상태다. 특별히 태국에서 기독교인이 많은 카렌족도 감기성 선교사를 통해 참여한다. 또한 경연 대회 중에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온 카렌족 난민을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남미 체코에서는 곡송과 목사를 통해 케 아팸에 관심이 많은 체코 현지 청소년들이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해외 참여 열기가 뜨겁다.

비대면 경연대회! 그리고 전문가 강의 혜택 제공

특히 이번 경연 대회에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으로 영상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중 신청자들도 최대 4인 이하로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해외 참여자들도 국내에서 심사를 원할 경우 항공비와 체류비를 지원해 국내 심사를 도울 예정이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심사위원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내 유일 한 경배와 찬양학과 교수인 전주대학교 김분택 교수 가 전하는 <사역자의 영성관리>, 전용대 목사의 <1세대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의



<작곡과 노래의 방법>, 여행스케치 리더 루카의 <화성악> 등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 강의가 참가자들 전 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 최고 아티스트를 심사위원으로

아울러 본 오디오 프로그램은 '미스터 트롯' 준결승 진출자인 류지광이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국내 유명 아티스트 및 관련 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됐다. 뮤지컬 명성왕후 영문 초연을 맡았던 <김분정 뮤지컬 감독>, 연기뿐 아니라 합창의 대부 가수 <양동근>, 불후의 명곡 단독 10회 우승 등 상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알려진 가수 <알리>, 남자의 자적 편에서 천상의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 <베디해>, 요계벳의 노래 다수의 CCM을 작곡한 <영평안 작곡가>, 가시나무(시인)과춘장/조성모와 한계령(영화)의 곡을 작곡한 백석예술대학교 <하덕규 교수>,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국내 유일 한 경배와 찬양 학과 학과장 전주대학교 <김분택 교수>, 여행스케치의 리더 <루카 조성석>,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 모스틀리 필하모니 <박상현 지휘자>.

찬양시역자 <전용대 목사>, 찬양시역자 <최미 시모>, 소망교회 <임한구 지휘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CTS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과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특별 프로그램 '대한민국 K-가스펠'을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전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찬양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이웃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K-가스펠.

선착순으로 신청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공식 홍보 계정에서 홍보 SNS를 본인의 계정으로 공유하고 공식 계정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모집 기간은 2021년 3월 1일(월)부터 ~5월 24일(월)까지 CTS 홈페이지(www.kgospel.co.kr) 또는 K-가스펠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문의처 : K-가스펠 운영사무국 (02)-6333-1127.

고난 받는 미얀마와 함께하는 제1차 기도회

세션형, 한교봉, 최소의 인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세션형)와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난받는 미얀마와 함께하는 제1차 기도회'가 5월 4일(화)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기도회는 미얀마인선교사회, KWMF(한인세계선교사회), KIMNET(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KWMC(한인세계선교협의회), 한국미얀마커뮤니티,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한국미얀마연대, 대한미얀마학술연구회가 참가했으며 한국교회총연합이 후원했다.

KWMA 강대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한교봉 대표회장인 정성진 목사는 "오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먼저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뜻깊은 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고교회와 조재호 목사의 대표기도, KWMA 법인 이사 이예복 목사의 성경봉독, 미얀마 예사랑 선교사의 미얀마의 그리스도 되소서' 특송이 이어졌다.

KWMA와 한교봉의 법인이사인 오정현(사령교회) 목사는 '회복되어야 할 섬김의 원리'(행 16:6-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목사는 "미얀마의 유희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성령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간구해주시고 미얀마의 장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했다.

설교 후 한교봉 상임이사 김종생 목사는 경과보고에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봉사자 선교 단체가 연대해 미얀마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준비하고 개최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얀마연대 조모아 대표와 미얀마 한인선교사회 회장인 강현성(가평) 선교사의 증언이 이어졌다.

1994년에 이주노동자로 처음 한국에 들어왔다고 소개한 조모아 대표는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원으로 우리 미얀마 사람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국립 외교원장의 충격 발언 논평

문 정부는 70년 한국 번영의 길에서 이탈하여 중국에 종속되는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지난 2021년 3월 30일 공개한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사: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에서 한미동맹을 '신화'로 규정하며 한·미 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상태에 비유하고, 그러면서 "미국측의 급격한 동맹 해체가 아니면,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립외교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 싱크탱크격으로 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김준형은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같은 연세대 정외과 출신으로, 최중건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이른바 '문정인 사단'의 핵심 멤버로 꼽힌다. 그는 한문대 교수 시절부터 김여준의 뉴스공장 등 친정부 매체에 대북전문가로 출연하여 야권에 대한 막말과 정부 옹호를 일삼다 2019년 국립외교원에 임명되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아예 부차관보 등 대북 전문가들을 정보부에서 일하던 강경파들이라고 폄하하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 무례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김준형 발언은 눈자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외교부 신화 구축연구원장인 차관급 현직 인사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준형의 발언은 2만 8천명의 미군을 반세기 이상 주둔시키고 있는 우방 미국정부에 대한 외교 결례일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주한 미군 철수 언급으로 북한 공산군의 제남침을 자극하는 위험스러운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살펴내려는 다음같이 전명한다.

1.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상태가 아니라 상호소통과 신뢰로서 더욱 견고히 되어야 한다.

김준형은 자신의 책 소개글에서 미국에 주권국으로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을 거론하며 이런 한국을 '일방적인 한·미 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면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김준형은 한미 관계를 '동맹 중독'으로 표현했다.

김준형은 그러면서 "미국 측의 급격한 동맹 해체가 아니면,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의 관점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장애물이 되니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구축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여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을 흔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일반 학자나 나라 국립외교원장의 입장으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양식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발언을

한 그의 언행이 과연 국립외교원장 직책에 적합한지 의아해한다.

2. 한미동맹은 신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지키는 주춧돌이다.

김준형은 책에서 "70년간의 긴 시간 동안 한미동맹은 신화가 되었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됐다"며 "분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압도적인 상대(미국)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은 타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라면서도 "이 관계가 상식적, 실용적, 합리적 판단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신화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이런 현상은) 부모가 얽한 자녀, 또는 사이버 종교를 따르는 무리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한국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한국은 스스로 의사결정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70여 년간의 한미관계를 종속주의적으로 보는 견해로서 한국이 경제적 성장 만큼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패권국 일본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었는데,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이라 말할 수 없다. 중국도 80년대의 농업국가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올라가는데 미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G2패권 국가가 되었고, 2028년대는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은 왕도적 패권국가로서 여러 나라들이 발전하도록 도와주었다.

3.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철수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성숙의 열매로 이루어진다.

김준형은 특히 "6·25전쟁으로 한미동맹이 생겨난 만큼,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은 동맹의 축소 또는 해체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며 "미국측의 급격하고 일방적인 동맹 해체가 아니라면, 한미동맹의 유연화 또는 더 나아가 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강경책은 보수정부의 전유물처럼 인식됐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과 같았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판단은 현 동북아의 정세에 맞지 않다.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난 후 중국은 미국의 시장 경제를 수용했으나 정치적으로는 기본권과 민주화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독재체제의 나라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버리기 전에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미군

의 주둔은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이사장은 4월 11일자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서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미중 대립이 격화될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제한되니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나는 이것을 한국이 사는 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4.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공고히 해야만 중국의 패권주의적 하(下)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준형은 현재 한국을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같은 가스라이팅이 "자아 비종교를 따르는 무리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미국에 더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준형은 한국이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느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고, 이러한 '동맹 중독'을 극복하고 상호적 관계를 회복해야 건강한 한·미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미동맹은 합리적으로 발전했고, 한국도 경제 수준의 향상만큼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부담하고 국방비 증액에 따라서 상호조정하기로 한 것은 종속적이 아니라 그만큼 독립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권이 총축할 때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동맹 중독'이란 용어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용어이며 동맹의 성숙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 안보경제 협력체인 쿼드(Quad)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주의 중국의 패권주의적 한반도 간섭과 하(下)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번영과 발전은 미국의 안보 뒷받침 없던 생각될 수 없다.

김준형의 탐미적인 발언은 국립외교원장으로서 결코 적절한 발언일 수 없다. 좌파들은 한국이 지난 70여년간 한미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지배 아래 미국에 종속되었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외교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동북아 안보 현황을 좌파적 운동권 시각에서 왜곡해서 보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편향된 인식이다.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후 국민소득 100불에 불과한 후진국에서 오늘날 3만불이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기술 전수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

당해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 파탄에 직면한 북한과 대조해서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경제성공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힘입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북한은 그동안 공연한 비핵화 약속을 취소하고 핵무기를 개량하고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지 않고 있다.

6. 인권과 민주화를 금지하는 전체주의 국가 중국 입력으로 쿼드(Quad)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김준형은 또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해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비슷한 갈등 상황에 끼인 독일, 프랑스, 호주, 아세안 등과 연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에 대해서 "(명칭상) 어디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일 경우 더더욱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케인진 백악관 동아시아 국장은 지난 5월 7일 쿼드가 "안보동맹 아니며, 협력은 유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P) 구상, 국제 규범, 항행의 자유, 민주주의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쿼드의 현안으로 백신 기구변화, 반도체, 베트남, 전까지 등 신기술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출주도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진국가 기술협력체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지금 국제정치적으로 독일, 프랑스, 호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 중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해하고 기독교 등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진핑의 일인 우상체제를 강요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거리를 두어야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대등하게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방문시에 환담 신세가 된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조공국가의 대접을 받는 등 동북아에서 한국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베트남은 지도에 남중국해가 아니라 자기 나라 기준으로 동해(East Sea)로 표기(表記)한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방적인 영토 주장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왔다. 중국이 거대(巨大) 군함을 출동시키면 베트남은 작은 군함으로도 맞았다. 중국의 침략에도 무릎 꿇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거명(署名·naming)하거나 공개적 명칭(shaming)은 주지 않는다는 스스로 정한 선(線)을 지켰다. 이런 베트남을 중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한미동맹이라는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는데도 베트남보다 중국에 대하여 종속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하여는 일본보다 더 강력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서는 위안부 배상 문제에 있어서 주권면제라는 국제 협약까지 깨면서 사사건건 감정으로까지 대하면서 중국에 대하여는 대국에 대한 소국의 태도로 일관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지진감을 앓게 하고 있다.

7. 문 정부는 중국 종속의 길에서 전환하여 4개 국 경제체제 협력체 쿼드(Quad)에 가입해야 한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탈미친중사대주의 외교정책에 의하여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에 가까이 가고 있다.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은 인구가 많아 한국 제품 수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동북공정에 의하여 고구려와 발해 등 북한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 일부로 보면서 중화제국주의 역사공정 아래 두고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 등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 통일에 방해한 나라이다.

우리가 만일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왕도패권국가이나 중국은 무례한 패권국가이며 인권과 민주화가 되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우리 국민 82%가 중국과 가까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였으나 미국은 우리의 해방자이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와 경제와 인권 가치를 들여온 나라이다.

중국으로 기운 결과가 무엇인가? 시진핑은 문 대통령 특사를 두 번이나 하석(下榻)에 앉았다. 중국 군용기는 제법처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군함은 우리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문 정부는 항의 성명서 내지 않았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며 가치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반면 2000년 역사에서 중국이 부상할 때는 우리나라는 항상 굴종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구한말 팽목적으로 청(淸)나라에 기운 결과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나라가 망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중 전선'에서 제외된 대한민국이 70년 간 걸었던 평화 번영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5월 2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쿼드(Quad) 가입을 전명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의 외교적 불만을 깨끗하게 털어버려주시기를 바란다.

2021년 5월 10일
살림을 꾸리는 나비행동